

#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길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다'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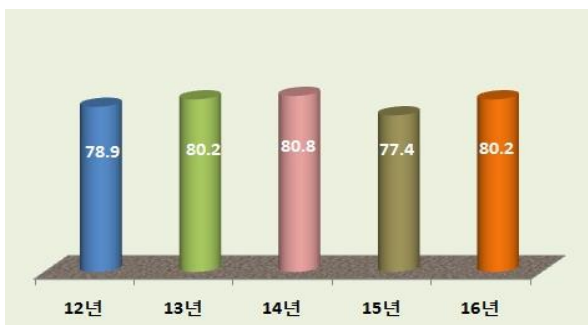
2016년 중·고등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0.2%,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시·도 간 격차는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길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 행복도(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 학업 성취수준 진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총 5,087교 976,973명(중3 3,244교 517,213명, 고2 1,843교 459,76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1일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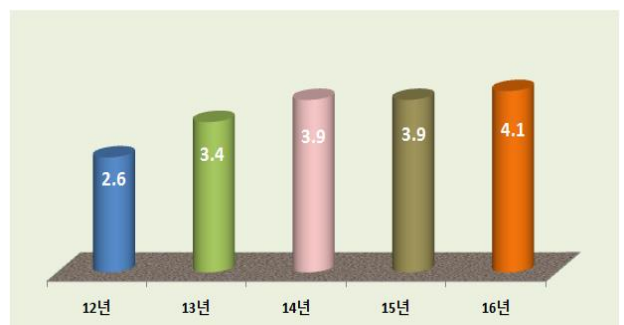
## 보통학력 이상 비율 '증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2016년 중·고등학교의 전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80.2%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1%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1] 중·고 전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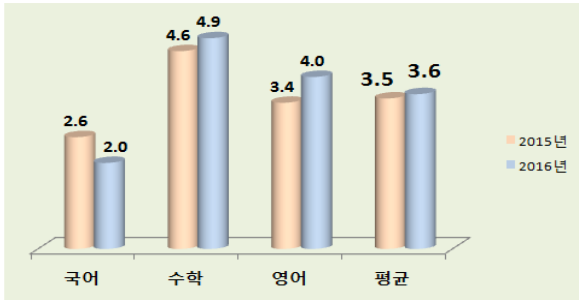
[그림 2] 중·고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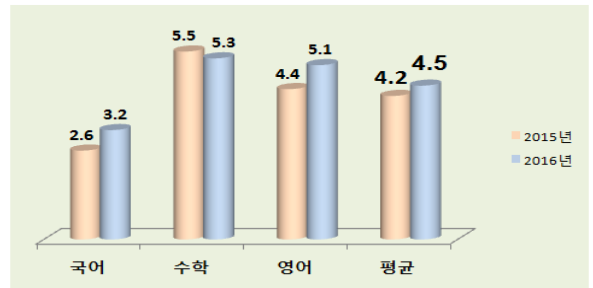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가 77.7%, 고등학교가 82.8%로, 고등학교가 더 높았다. 과목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 90.1%, 수학 68.2%, 영어 74.7%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84.1%, 수학 78.2%, 영어 86.0%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학교가 3.6%, 고등학교가 4.5%로, 고등학교가 다소 높았다. 과목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 2.0%, 수학 4.9%, 영어 4.0%이고, 고등학교는 국어 3.2%, 수학 5.3%, 영어 5.1%로 나타났다.

[그림3] 중학교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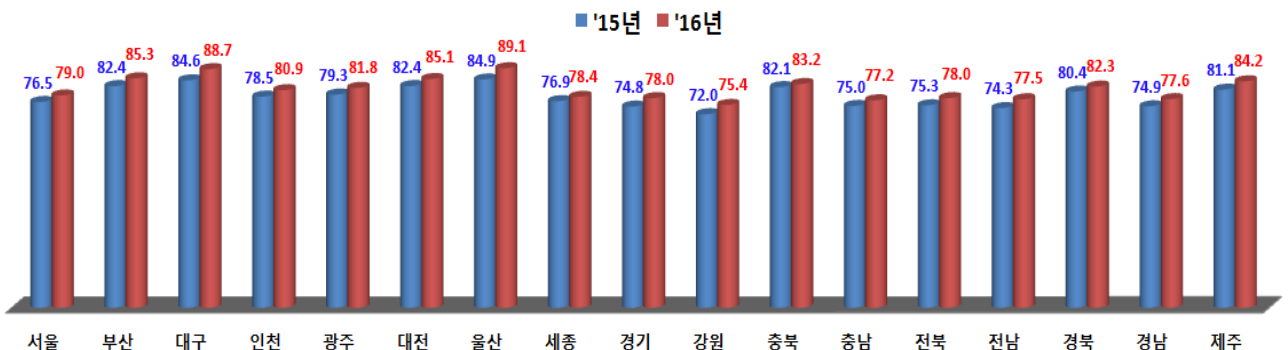
[그림4] 고등학교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전년 대비 보통학력 이상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시·도 간 격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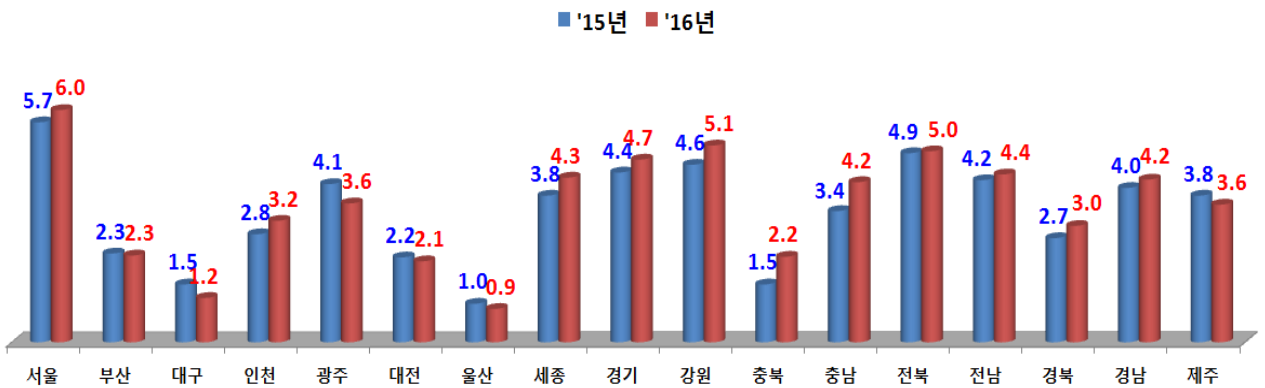
시·도 교육청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교육청이 89.1%로 가장 높았고, 대구교육청(88.7%), 부산교육청(85.3%), 대전교육청(85.1%)도 85%이상의 높은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강원교육청은 75.4%로 가장 낮았고, 충남교육청도 77.2%로 낮은 편이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강원교육청과 가장 높은 울산교육청과의 차이는 13.7%p로, 전년 12.9%p보다 0.8%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5] 시·도 교육청별 보통학력 이상 비율(%) 추이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교육청이 0.9%로 가장 낮았고, 대구교육청(1.2%)도 2% 미만의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6.0%로 가장 높았고, 강원교육청(5.1%), 전북교육청(5.0%)도 높은 편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교육청과 가장 낮은 울산교육청과의 차이는 5.1%p로, 전년 4.7%p보다 0.4%p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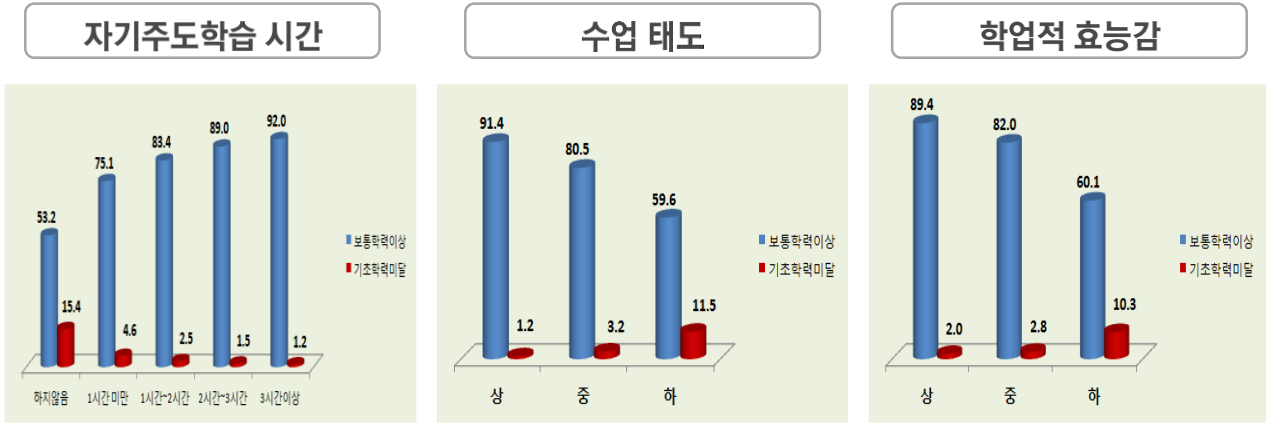
[그림 6] 시·도 교육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영향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길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일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92.0%로 가장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2%로 가장 낮았다. 수업태도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차이는 31.8%p(상: 91.4%, 하: 59.6%),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차이는 10.3%p(상: 1.2%, 하: 11.5%)로 나타났다. 학업적 효능감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29.3%p(상: 89.4%, 하: 60.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8.3%p(상: 2.0%, 하: 10.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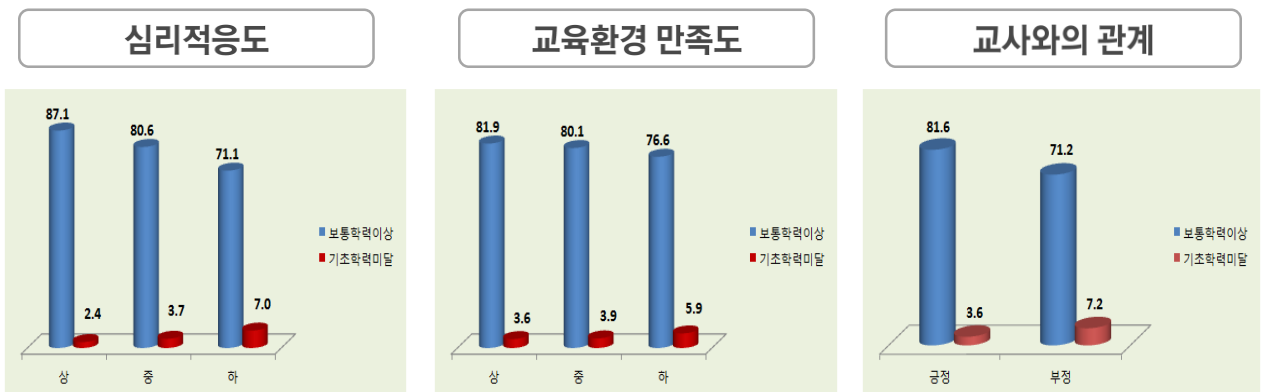
[그림 7] 자기주도학습 시간, 수업태도, 학업적 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교생활 행복도(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에 영향

심리적응도가 높을수록,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16.0%p(상: 87.1%, 하: 71.1%),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4.6%p(상: 2.4%, 하: 7.0%)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5.3%p(상: 81.9%, 하: 76.6%),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2.3%p(상: 3.6%, 하: 5.9%)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따른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이는 10.4%p(긍정: 81.6%, 부정: 71.2%),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3.6%p(긍정: 3.6%, 부정: 7.2%)로 나타났다.

[그림 8] 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 교육부는 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시·도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전년보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 운영,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학습부진아 등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관련 법령\* 조항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도별 연수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7항(‘16.8.2.) :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8항(‘16.8.2.) :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